

‘위기 극복’ 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한국판 뉴딜 21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유지·창출 국가채무비율 46.7% 경중... 관리재정수지 5.4% 적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 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곳(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

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

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럼에도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0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을 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000억원을 투입,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K-방역에 1조8,000억원,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는 46조9,000억원을 쓴다.

분야별 자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정기 브리핑

신정훈 “중기 근로자 창업지원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일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범위를 15년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자로, 종사업무 또한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하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근속연수 기준도 10년



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해 역량있는 근로자들이 적극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며 “우수근로자 지원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석, 국감 대비 ‘신문고 제보센터’ 운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을) 의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신문고’라는 제보센터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는 이 의원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부처의 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비리, 개선점 등을 공개 이메일(hslee2020bk@gmail.com) 등에 게재하면 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



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자치단체와 산하·유관기관 등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생생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에 반영하고, 서민들이 겪은 억울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제민주화 논의”·김 “여야 관계개선 기대”

이낙연, 각 정당 대표 예방 협치 논의 속 신경전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원구성이나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헛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예우를 갖춰 화답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가 정치인과 취재기자로서 처음 만난 뒤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계가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문제는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세 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워낙 위기이니 집권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통합당의 혁신 노력을 환영한다면 “4·15 총선 공동공약과 양당의 공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 정경정책을 입법화하자”며 “국회 비상경제특위를 빨리 가동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시급한 과제가 코로나 2차 확산을 극복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정치권이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과 관련, 김 위원장은 “빨리 해서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 역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어진 주 원내대표 예방에서도 환담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가 “이 대표는 인품도 훌륭하고 의회주의자로 알려졌다. 야당의 기대가 크다”고 운을 떼자, 이 대표는 “주 대표의 인품에 반했고 흡모한다”고 했다.

“원구성” 문제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아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잘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회 비상경제특위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재반·수사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어서 사법감독특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책에서의 협치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의 과정에서 원칙은 지키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유연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외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했으며, 오후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원내 주요 정당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연합뉴스

이병훈 “도자센터·비엔날레관 건립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1일 “국립광주박물관 내 신안 해저유물을 전시하는 ‘아시아도자문화센터’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거나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도자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고대 아시아도자 교류의 핵심루트였던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도자기 문화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 기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장소가 비좁고 낡아 전시관 내에 비가 새는 등 아시아 현대미술 거점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의원은 “건립 사업이 완성될 경우 최고의 관광 및 예술체험 지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원이 “격리·집합금지 위반 엄정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합금지 위반 등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합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